

인권감수성, 마음으로 느끼는 '신호등'

전문가칼럼 - 인권감수성



박숙경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법률봉사 차 동행했던 사법연수생 동명 씨(가명)가 다가와 물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되요?”

그날 조사하던 장애인시설은 복권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곳이었다. 단체생활을 위한 생활동과 새로 지은 예배당을 갖춘 전형적인 모습의 그 건물은 나름 깔끔했다. 시설입구 게시판에는 거주인들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는 이름, 주민번호, 성격과 특징 등이 적혀 있었다. ‘명랑하지만 거짓 말을 잘 함, 수줍음이 많고 신경질적 임’과 같은 내용이었다. 흡사 동물원에 수용된 동물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 같았다.

동명 씨가 머뭇거리며 끼낸 질문은 이랬다.

“제가 보기에도 이 시설은 별다른 문제를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죠? 이만하면 살만한 거 아닌가요? 건물도 깨끗하고 식사도 제 때 나오는데 왜 시설이 문제라는 거죠?”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당신은 살고 싶은가

이 사람은 입구의 게시판을 보지 못한 걸까? 나는 길게 답할 시간도 없고 짜증도 나서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섰다. “동명 씨는 이곳에서 살고 싶어요?”

이윽고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동명 씨가 내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 같으면 살고 싶나?’는 이야기를 듣고 떠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만약 나라면 어떤 지를 생각해보니 베일이 벗겨진 듯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확 보였습니다. 그 시설에서 절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듣지 않아도 뭐가 문제



인지 운 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2004년 여름, 미신고시설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일이다.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는 미신고시설들을 신고시설로 양성화하려는 복지부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던 차였다.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은 한시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차별을 유예하여 대거 신고시설로 전환하려던 정책이다. 당시 양성화정책에 의해 신고시설로 전환 중이던 미신고시설 대부분은 시설장과 그의 친인척에 의해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대다수가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 있었다. 문제 시설들이 양성화되어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제19조에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설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얼굴들과 마주하며 정해진 시간 표대로 먹고 사는 삶을 살다보면 사람들은 점점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과 꿈을 잃어간다. 시설은 인간다운 삶을 상실시키고, 사회적 자극과 발달이 멈춰지는 분리와 배제의 공간이다.

나는 12년째 시설에서 발생해 온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탈시설 운동을 전개해왔다. 그런 내게 사람들은 묻는다. “왜 시설이 문제야? 그나마 효율적인 대안이 아니냐? 모든 시설이 인권침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원칙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나?” 이 질문들에 대해 난 할 말이 그리 많지 않다. 그저 “당신은 시설에서 살고 싶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

어떠한 이유라도 차별 안돼

은가?”라고 묻고 싶다. 이 짧은 질문을 통해 동명씨는 자신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을 타자화하고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었음을 자각했다. 나는 시민교육 시간에도 학생들에게서 ‘소수자에 대한 타자화’ 모습을 보곤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시설에서 사는 것을 당연시 하는 태도, 노숙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분리와 배제와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하는 태도 등을 보곤 한다. 그들을 자신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자선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 말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

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은 반인권적인 것이다. 차별은 사회적 약자를 타자화하는 심리로부터 자라난다.

나는 시민교육시간에 2015년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성우 교수팀이 개발한 대학생인권감수성 테스트를 활용해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감수성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표는 각각의 권리내용을 구체적인 사회의 제도로 바꿔 지지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인권감수성을 측정한 후 자신의 인권감수성 수준에 맞는 국가를 매칭 해준다. 그런데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측정 결과는 생각보다 매우 낮다. 아마도 우리 현실이 학생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구체적 의제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발달시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감수성은 인권을 마음으로 느끼는 신호등이다. 인권감수성이 발달한 사람은 생활 속에서 인권침해 상황을 접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따라서 인권감수성이 발달한 사람은 인권을 존중하는 정도도 높다. 인권감수성을 쉽게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사안에 대해 역사지(易地思之)하는 것이다. ‘만약 나라면 어쩔지’를 생각해보면 모든 사안에 내재된 복잡한 인권이슈가 쉽게 몸으로 느껴진다. 내 안의 ‘타자화’ 심리를 인식하고, 넘어서는 것이 인권감수성의 시작이다.

되였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돈은 모든 행복과 만족의 지표이다.

짐멜은 말하고 있는 돈은 근대적인 세계상의 일부분인 동시에 상징이자 거울이다. 그에 따르면 근대적인 삶에서는 확고하고 본질적이며 안정적인 지식, 이념,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버린다.”

근대의 모든 것은 발전, 운동 및 불안정의 상태로 존재한다. 돈과 화폐거래는 사물들의 이러한 ‘판타 레이(=만물은 유전(流轉)한다)’의 과정을 지탱하게 하고, 이 과정 때문에 돈과 화폐 거래가 존속된다. 이러한 경제적 질서에 대하여 짐멜은 “동시에 전체 운동의 상징이자 거울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단지 다음을 언급할 수 있을 따름이다. 화폐경제와 같은 현상은, 아무리 전적으로 자신의 내적 인 법칙들을 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동시대 문화 운동들 전체를—심지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운동도 규제하는 동일한 리듬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다.



짐멜은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될 때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선, 교환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면 사람들은 사물의 고유함에 대하여 무감각해진다.

▶1면에서 이어짐

돈은 모든 가치를 교환가치라는 등 가성(等價性)과 관련지어 평가하게 함으로써, 사물과 사람의 고유한 질적 가치를 박탈하고 세계를 수(數)와 양(量)의 문제로 변형시킨다. 이처럼 교환가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서 “가치가 얼마인가”라는 물음으로 바뀐다. 짐멜은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될 때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선, 교환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면 사람들은 사물의 고유함에 대하여 무감각해진다.

또한 짐멜은 사람들은 재화를 얻는 수단에 불과한 돈을 오히려 독립적 인 재화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했다.

참여마당

김성환

(산업경영공학과 2009)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범죄 '반성'이 필요하다

지난 3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다녀왔다. 작년 12월 28일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갑작스럽게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위안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따라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이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위안부’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른 박물관답지 않게 시민들의 눈에 잘 띠지 않는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아래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처음에는 서대문독립공원 부지에 건립을 하려했지만, 독립운동단체들이 몸을 더럽힌 여성을 위한 박물관은 지을 수 없다며 공개적인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건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안부’ 관련 전시와 함께 베트남 전쟁 피해자에 대한 전시도 하고 있다. 실제 베트남 전쟁 피해 여성이 쓴 글들을 통해 당시 어떤 형태의 범죄들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군대를 파병했다. 그때 파병된 우리나라 군대에 의해 민간인 학살, 집단 강간 등의 전쟁범죄가 발생했다. 베트남에는 아직까지도 한국군 증오비가 60여 개의 마을에 남아있다고 한다. 박물관에서는 베트남에서 불리는 한국군에 대한 증오의 노래가사도 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쟁범죄의 가해자이기도 하다.

지난 4월에는 베트남 전쟁 피해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베트남 전쟁 피해자는 한국을 방문해서 강연회를 가졌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그간 몰랐던 베트남에서의 전쟁범죄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강연회장 입구에서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의 강연회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오늘에 이르러 베트남 전쟁은 우리 사회에서 전쟁의 핏값으로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경제 전쟁’으로 자랑스럽게 기억되고 있다. 참전 군인들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당시의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오히려 스스로를 전쟁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해방이 된지 70여 년이 지났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피해자는 제외된 채로 이뤄진 작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저지른 베트남에서의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 최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은 무려 74%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75.4%가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시선은 다른 법이다. 베트남 전쟁범죄도 마찬가지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범죄 피해자는 곧 우리가 저지른 가해의 역사이다. 우리가 ‘위안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당하게 사과를 주장하려면 우리가 먼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알고 성찰하며 사죄해야 한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경제 전쟁’이라는 신화를 해체하고, 전쟁 피해자의 고통을 직시하고 사실을 사실로 사죄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경희대학교 4학년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국내외 진학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종훈련 프로그램

훈련생 모집

2016. 04. 11 ~ 2016. 05. 31

프로그램 개요

신청기간 2016. 04. 11 ~ 2016. 05. 31

신청절차 지원서 접수(경희대학교 홈페이지 접수)

모집인원 60명(국내외 진학자 30명, 취업준비생 30명)

교육기간 6~8월 주3일, 8시간 수업 (설정상 연장될 수 있음) 과정별 400시간 수료

교육방법 저원리형(면접형) 수업

모집자격 지원서 접수(경희대학교 홈페이지 접수)

지원자 자격 1. 학과별로 유익한 학제적 경험 2. 대학교전체학과 최종학년 학점평균 2.0(75점) 이상 3.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4.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5.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6.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7.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8.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9.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10.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11.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12.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13.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14.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15.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16.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17.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18.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19.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20.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21.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22.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23.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24.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25.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26.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27.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28.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29.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30.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31.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32.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33.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34.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35.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36.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37.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38.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39.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40.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41.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42.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43.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44.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45.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46.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47.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48.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49.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50.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51.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52.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53.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54.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55.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56.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57.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58.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59.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60.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61.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62.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63.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64.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65.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66.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67.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68.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69.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70.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71.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72.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73.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74.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75.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76.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77.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78.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79.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80.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81.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82.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83.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84.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85.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86.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87.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88.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89.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 이상 90. 1학기 전기전체학과 평균 2.0(75점)